



창업기업동향(승인번호 제142009호)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지 면) 2. 29.(목) 석간
(인터넷) 2. 29.(목) 06:00

2023년 연간 창업기업동향

- '23년 연간 창업기업 수는 123만 8,617개로 집계
-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부동산업(79,076개↓) 제외 시, '22년과 유사 수준
- 숙박·음식점업(8.1%↑), 전기·가스·공기(32.7%↑), 개인서비스(10.0%↑) 등에서 증가
- 부동산업(38.4%↓), 도소매업(1.4%↓), 건설업(8.6%↓) 등에서 감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는 '2023년 창업기업동향'을 발표했다.

2023년 전체 창업은 온라인·비대면 관련 업종의 증가세 지속과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대면 업종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글로벌 경기둔화와 3고(高)(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은 창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전년대비 6.0%(78,862개) 감소한 123만 8,617개*로 집계되었다.

* 연간 창업기업(개): ('19) 1,285,259 → ('20) 1,484,667 → ('21) 1,417,973 → ('22) 1,317,479 → ('23) 1,238,617

특히, '22년부터 이어진 부동산 경기 부진 등으로 부동산업의 신규 창업이 전년대비 79,076개(-38.4%) 대폭 감소한 것이 창업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부동산업을 제외할 경우 전년대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연간 부동산업 제외 창업(개): ('19) 1,005,462 → ('20) 1,046,814 → ('21) 1,100,589 → ('22) 1,111,718 → ('23) 1,111,932

업종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대면업종 생산이 확대되면서 숙박 및 음식점업(8.1%↑), 전기·가스·공기(32.7%↑) 등은 전년대비 신규창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증가업종: 개인서비스(10.0%↑), 사업시설관리(9.5%↑), 교육서비스(4.9%↑)

반면, 국내외 경기부진에 따른 투자 축소, 수출감소 등으로 도소매업(1.4%↓), 건설업(8.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9.0%↓) 등에서 창업이 감소*했다.

* 감소업종: 부동산업(38.4%↓), 운수창고업(6.9%↓), 제조업(10.4%↓), 금융·보험업(23.2%↓), 농·임·어업 및 광업(9.5%↓), 정보통신업(2.5%↓), 예술·스포츠·여가(2.3%↓), 보건·사회복지(5.7%↓), 수도·하수폐기물(2.0%↓)

월별로 볼 때, 전체창업은 대부분 월(月)에서 전년동월대비 감소했으나, 10~11월은 소폭 증가하는 모습도 보였다. 또한, 부동산업을 제외하면 1~5월, 10~11월에는 월별창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월별 창업기업 수 및 증감률 >

(단위 : 개,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체	105,777	109,338	118,257	101,452	107,598	108,082	104,483	104,068	91,907	99,364	102,579	85,712
	(△9.8)	(1.8)	(△4.7)	(△8.6)	(△7.1)	(△10.2)	(△8.0)	(△5.2)	(△8.2)	(0.4)	(1.6)	(△12.7)
부동산 제외	93,898	97,501	107,372	91,483	94,536	97,004	93,228	93,930	82,960	90,436	93,304	76,280
	(1.9)	(12.6)	(3.7)	(0.9)	(3.2)	(△4.0)	(△3.8)	(△2.3)	(△5.5)	(2.6)	(3.2)	(△12.0)

* () :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창업이 감소*했으나, 부동산업 제외 시**, 40대 (-2.8%↓) 및 50대(-1.5%↓)를 제외한 연령대에서는 증가했다.

* 연령대별 창업 증감율(% 전년대비): (30세미만) △1.8 (30대) △3.5 (40대) △9.0 (50대) △9.1 (60세이상) △3.7

** 부동산업 제외(% 전년대비): (30세미만) 1.3 (30대) 0.6 (40대) △2.8 (50대) △1.5 (60세이상) 5.8

한편, 2023년 연간 기술기반 창업은 221,436개로 전년대비 3.5%(7,980개) 감소했으나, 전체 창업에서 기술기반 창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0.5%p 상승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 연간 기술기반 창업 및 전체창업 중 비중(개, %) :

(‘19) 220,607(17.2) → (‘20) 228,949(15.4) → (‘21) 239,620(16.9) → (‘22) 229,416(17.4) → (‘23) 221,436(17.9)

▶ 본 통계 이용 시 유의사항

○ 국세청 사업자등록자료를 기준으로 창업기업을 집계하여, 법령(중소기업창업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이 일부 포함될 수 있음

* 개인회사의 법인전환, 기존 회사의 합병·분할, 폐업 후 동일업종 재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등

담당 부서	중소기업정책관 정책분석평가과	책임자	과 장	김령석 (044-204-7460)
		담당자	사무관	홍영택 (044-204-7468)



참고1

'23년 연간 창업기업동향 주요 업종별 증감 분석

▶ 본 통계 이용 시 유의사항

- 국세청 사업자등록자료를 기준으로 창업기업을 집계하여, 법령(중소기업창업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이 일부 포함될 수 있음

* 개인회사의 법인전환, 기존 회사의 합병·분할, 폐업 후 동일업종 재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등

1. 증가 업종

□ (숙박·음식점업) 펜트업 효과(Pent-up Effect), 상가 임차료 인하, 여행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23년 숙박·음식점업 창업은 전년대비 증가

- '23년 숙박·음식점업 창업은 펜트업 효과 등으로 상반기에 크게 증가했지만 하반기에는 고금리, 고물가 지속 등의 영향으로 둔화

※ 펜트업 효과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억눌렸던 수요가 급속도로 살아나는 현상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요가 억제됐다가 엔데믹 선언 이후 유동 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 확대로 신규창업 활발

※ 외식업의 경우 신규영업자 법정 위생교육(집합교육)의 수강 증가로 주 3회 교육을 주 4회로 확대하는 등 신규 교육생이 크게 증가 (한국외식업중앙회)

- 최근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공실률이 높은 상가의 경우 임차료를 인하하고 있어 음식점업 창업에 긍정적으로 작용

* 소규모상가 공실률(%) : ('22.1Q) 6.4 → (2Q) 6.6 → (3Q) 6.8 → (4Q) 6.9 → ('23.1Q) 6.9 → (2Q) 6.9 → (3Q) 7.3 → (4Q) 7.3 (한국부동산원)

- 숙박업은 엔데믹 이후 국내외 여행 수요와 해외 관광 입국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신규창업 증가

* 해외관광입국자수(만명) : ('20) 165.4 → ('21) 21.2 → ('22) 199.9 → ('23) 888.12 (한국관광공사)

* 숙박업 창업 증감률(% , 전년대비) : ('21) 21.1 → ('22) △5.3 → ('23) 3.3

(단위 : 개, %)

구분	2022년			2023년					
	3/4	4/4		1/4	2/4	3/4	4/4	12월	
숙박·음식점업	41,133	41,316	156,489	41,464	46,157	41,153	40,414	12,116	169,188
	(11.9)	(2.1)	(△3.0)	(25.6)	(12.5)	(0.04)	(△2.2)	(△5.8)	(8.1)

* () :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 (세부업종별) 숙박업, 음식점업 등에서 크게 증가
 - (음식점업) 한식음식점업, 한식육류요리전문점,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
 - * 음식점 및 주점업 창업증감률(% , 전년대비) : ('21) △4.4 → ('22) △2.8 → ('23) 8.4
 - (숙박업) 여관업이 크게 감소했으나 민박업, 기타 일반 및 생활숙박 시설 운영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등을 중심으로 신규창업 활발
- (연령별) '30세 미만'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신규 창업 활발
 - * '23년 연령별 숙박·음식점업 창업 증가율(% , 전년대비) : (30세 미만) △2.2 (30대) 5.7 (40대) 11.0 (50대) 10.1 (60세 이상) 17.0
- (조직형태별) 법인과 개인 창업 모두 양호한 증가율 기록
 - * '23년 숙박·음식점업 창업기업 증가율(% , 전년대비) : (법인) 19.1 (개인) 8.0

□ (전기·가스·공기) 환경규제(RE100, CF100)로 인한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태양광 발전 산업의 영역 확대(발전업, 시스템엔지니어링, 관련 서비스업 등), 노후 대비 수익사업 등으로 신규창업 활발

※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은 사용 전력 100%를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지만, CF100(Carbon Free 100%)은 사용전력 100%를 재생 에너지와 원전, 연료전지 등으로 충당

- 국내 태양광 산업은 안정적인 수입과 적은 투자 비용 등의 이유로 노후 대비를 위한 투자사업으로 인기 상승

※ 태양광 발전사업은 생산되는 전기를 한전과 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하기 때문에 매월 안정적 수익(월 100KW 생산 시 약 200만원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설치비의 최대 70~80% 대출이 가능하므로 20~30%의 자기 자본으로 투자 가능

(단위 : 개, %)

구분	2022년			2023년					
	3/4	4/4		1/4	2/4	3/4	4/4	12월	
전기가스	6,272	6,435	23,773	7,675	8,329	7,779	7,763	2,541	31,546
공기	(4.4)	(△6.6)	(△1.5)	(49.4)	(40.5)	(24.0)	(20.6)	(13.7)	(32.7)

* () :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 (세부업종별) 전기업 중 태양광 발전 등 태양력 발전업을 중심으로 증가
- (연령별)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전 연령대에서 신규창업이 활발
 - * '23년 연령별 전기·가스·공기 창업 증가율(% , 전년대비) : (30세 미만) 31.0 (30대) 29.7 (40대) 21.2 (50대) 23.7 (60세 이상) 44.0

○ (조직형태별) 개인 창업을 중심으로 증가

* '23년 전기.가스.공기 창업기업 증가율(% , 전년대비) : (법인) △5.4 (개인) 33.6

□ (개인서비스업)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 확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돌봄 수요 증가 등으로 개인서비스업 창업 증가

○ 초고령사회 진입과 사회·경제활동 참여 확대(맞벌이) 등으로 고령층과 어린이 돌봄에 대한 수요 확대로 관련 창업도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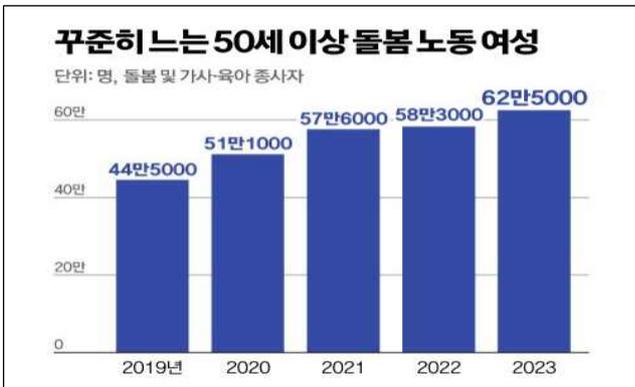
※ 최근 보건·돌봄 수요 증가 영향으로 보건업 고용 증가세 지속, 사회복지업은 거주(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비거주(노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고용 증가 (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 '23년 보건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감(천명, 전년동월대비) : ('23.3) 27.3 → (6) 31.6 → (9) 29.9 → (12) 2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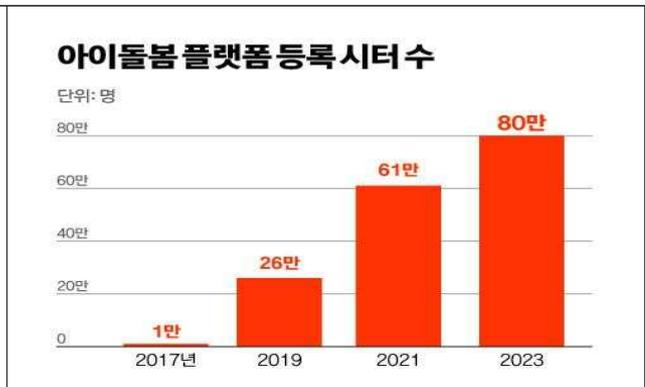
* '23년 노인 거주 복지시설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감(천명, 전년동월대비) : ('23.3) 14.1 → (6) 17.5 → (9) 20.3 → (12) 19.5

※ 돌봄 및 가사·육아 서비스에 종사하는 50세 이상 여성은 '19년 상반기 44.5만명 → '23년 상반기 62.5만명으로 증가(4년간 증가율은 40.4%)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 아이 돌봄 플랫폼 '맘시터' 가입 돌보미 수 : ('17년) 1만명 → ('19년) 26만명 → ('23년) 80만명



자료: 통계청(마이크로데이터), The JoongAng



자료: 맘편한세상, The JoongAng

○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둔화됐던 창업수요가 느는 가운데, 기존의 창업 트렌드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창업(예: 출장형 대형견 목욕 서비스업 등)이 발생하고 있어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 창업이 증가

(단위 : 개, %)

구분	2022년			2023년					
	3/4	4/4		1/4	2/4	3/4	4/4	12월	
개인 서비스업	13,701 (7.5)	13,417 (0.04)	56,333 (0.4)	15,701 (6.0)	16,458 (14.3)	14,847 (8.4)	14,945 (11.4)	4,717 (11.7)	61,951 (10.0)

* () :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 (세부업종별) 협회·단체, 개인·소비용품 수리업은 감소했지만, 기타 개인 서비스업 창업은 크게 증가

- 개인 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

* '23년 기타 개인 서비스업 창업 증가율(% 전년대비) : ('21) 4.8 → ('22) 2.6 → ('23) 14.1

○ (연령별)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전 연령대에서 증가

* '23년 연령별 개인서비스업 창업 증가율(% 전년대비) :
(30세 미만) 1.5 (30대) 10.2 (40대) 10.0 (50대) 11.9 (60세 이상) 19.2

○ (조직형태별) 법인 창업은 감소한 반면 개인은 증가

* '23년 개인서비스업 창업기업 증가율(% 전년대비) : (법인) △2.2 (개인) 10.2

□ (사업 시설관리·임대업)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각종 행사와 국내외 여행 증가, 청소 수요 확대 등으로 여행업, 전시·컨벤션·행사대리업, 건축물 일반 청소업 등에서 신규창업 활발

○ 엔데믹 이후 전시회, 공연, 국제회의 등의 행사와 국내외 여행이 증가하면서 전시·컨벤션·행사대리업과 여행업 신규창업 증가

○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청소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건축물 일반 청소업 신규창업 증가

(단위 : 개, %)

구분	2022년			2023년					
	3/4	4/4		1/4	2/4	3/4	4/4	12월	
사업시설관리 임대업	9,578	9,425	39,291	10,942	10,765	10,717	10,599	3,420	43,023
	(11.1)	(5.4)	(1.6)	(7.6)	(6.4)	(11.9)	(12.5)	(8.7)	(9.5)

* () :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 (세부업종별) 사업 시설관리업은 건축물 일반 청소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은 여행업, 전시·컨벤션·행사대리업을 중심으로 증가

○ (연령별) '30대 이하' 중심으로 전연령대에서 증가

* '23년 연령별 사업 시설관리·임대업 증가율(% 전년대비) :
(30세 미만) 12.1 (30대) 12.3 (40대) 8.1 (50대) 6.0 (60세 이상) 11.6

○ (조직형태별) 개인 창업 중심으로 증가

* '23년 사업 시설관리·임대업 창업기업 증가율(% 전년대비) : (법인) 5.6 (개인) 10.2

□ **(교육서비스업)** 코로나19 집합 금지 해제('21.1월) 이후 대면 교육 활성화, 건강·취미 관련 수요 확대 등으로 교육서비스업 신규창업 활발

○ 교육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교과학원과 입시 관련 교육지원·자문 서비스업 등에 대한 수요 확대로 관련 창업 증가

* 일반 교과학원 창업 증감률(% , 전년대비) : ('21) △1.9 → ('22) 0.02 → ('23) 2.9

○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 및 수요 증가(덤벨 이코노미¹⁾)와 외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교육기관 신규창업 증가

* 태권도·무술 교육기관 창업 증감률(% , 전년대비) : ('21) △12.3 → ('22) 14.7 → ('23) 20.3

* 외국어학원 창업 증감률(% , 전년대비) : ('21) 21.8 → ('22) 3.2 → ('23) 37.9

(단위 : 개, %)

구분	2022년			2023년					
	3/4	4/4		1/4	2/4	3/4	4/4	12월	
교육 서비스업	10,108 (8.9)	10,606 (0.1)	42,536 (4.3)	13,268 (9.0)	10,212 (5.9)	10,306 (2.0)	10,836 (2.2)	3,857 (△2.4)	44,622 (4.9)

* () :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 **(세부업종별)** 외국어학원, 태권도 및 무술 등의 스포츠 교육기관, 교육지원서비스업(교육 관련 자문 및 평가업 등) 등을 중심으로 증가

○ **(연령별)** '50대'를 중심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신규창업 증가

* '23년 연령별 교육서비스업 창업 증가율(% , 전년대비) :

(30세 미만) 4.6 (30대) 0.4 (40대) 6.2 (50대) 11.2 (60세 이상) 4.4

○ **(조직형태별)** 개인 창업 중심으로 증가

* '23년 교육서비스업 창업기업 증가율(% , 전년대비) : (법인) 0.2 (개인) 5.1

1) 덤벨 이코노미(Dumbbell economy)이란 아령(Dumbbell)과 경제(Economy)를 합친 용어로, 건강과 체력 관리에 관한 소비가 늘고 관련 시장이 호황을 누리는 경제 현상을 말함

2. 감소 업종

- (부동산업)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부진 지속, 부동산 가격 및 자산가치 하락 등의 영향으로 창업 감소세 지속
 -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매매가, 전세 가격의 동반 하락에 따른 자본 이득 및 월세수익이 하락하면서 창업 감소

< 누적 주택 및 아파트 가격지수 변화, % >

구분	매매				전세			
	주택종합		아파트		주택종합		아파트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전국	△4.68	△3.56	△7.56	△4.83	△5.56	△5.07	△8.69	△6.95
수도권	△6.48	△3.62	△9.68	△4.62	△8.01	△5.75	△11.97	△7.54
지방	△3.04	△3.50	△5.54	△5.02	△3.32	△4.44	△5.52	△6.39

자료 : 한국부동산원 '23.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

< 주택 유형별 매매거래 현황, 동(호)수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805,272	1,279,305	1,015,171	508,790	555,054
단독주택	85,762	109,884	105,364	68,199	49,998
다가구주택	19,110	24,599	20,792	12,264	7,651
다세대주택	127,256	170,683	182,477	106,770	67,518
연립주택	28,083	40,061	37,356	22,976	18,075
아파트	545,061	934,078	669,182	298,581	411,812

자료 : 국토교통부, KOSIS 통계포털

< 전국 미분양 주택 월별 추이(단위: 호)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민간부분	47,797	19,005	17,710	68,107	62,489
(준공후)	18,065	12,006	7,449	7,518	10,857

자료 : 미분양주택현황보고(국토교통부), KOSIS 통계포털

(단위 : 개, %)

구분	2022년			2023년					
	3/4	4/4		1/4	2/4	3/4	4/4	12월	
부동산업	42,660	32,775	205,761	34,601	34,109	30,340	27,635	9,432	126,685
	(△44.9)	(△58.7)	(△35.2)	(△47.9)	(△46.6)	(△28.9)	(△15.7)	(△21.1)	(△38.4)

* () :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 (세부업종별) 주거용 건물임대업과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중심으로 감소
- (연령별) 전 연령대에서 두자릿 수 감소
 - * '23년 연령별 부동산업 창업 증가율(% , 전년대비) :
(30세 미만) △49.9 (30대) △44.0 (40대) △42.2 (50대) △37.1 (60세 이상) △29.5
- (조직형태별) 법인 및 개인 모두 두자릿 수 감소 기록
 - * '23년 부동산업 창업기업 증가율(% , 전년대비) : (법인) △44.3 (개인) △37.9

□ (도·소매업) 온라인 소비문화의 확산 등의 영향으로 전자상거래업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경쟁 심화,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감소 전환

- 낮은 초기 투자비용, 해외판매 용이성 등 온라인 소매창업은 증가하고 있으나 대형 역외 해외사업자(알리익스프레스, Q10, 텐무 등) 등장에 따른 경쟁심화로 국내 소규모 온라인 창업 위축
 - * 온라인쇼핑 매출 증감률(%) : ('21.1분기) 21.1 → ('2) 25.1 → ('3) 18.2 → ('4) 16.1 → ('22.1분기) 12.7 → ('2) 11.7 → ('3) 11.2 → ('4) 6.3 → ('23.1분기) 7.0 → ('2) 7.5 → ('3) 8.0 → ('4) 10.6 (통계청)
 - * '23년 소매업(자동차 제외) 신규창업 증감률(전년동기대비, %) :
('21) 13.4 → ('22) 11.6 → ('23) △0.5
-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도매 및 상품중개업 창업은 감소세 지속
 - * '23년 도매상품중개업 신규창업 증감률(전년동기대비, %) : ('21) △3.4 → ('22) △7.4 → ('23) △5.6

(단위 : 개, %)

구분	2022년			2023년					
	3/4	4/4		1/4	2/4	3/4	4/4	12월	
도·소매업	118,740	107,272	456,426	125,248	113,031	110,673	101,242	27,882	450,194
	(16.3)	(4.7)	(7.3)	(7.9)	(△1.2)	(△6.8)	(△5.6)	(△21.6)	(△1.4)

* () :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 (세부업종별) 도매업 감소 지속 및 소매업 감소 전환으로 창업 감소
- (연령별) '30세 미만', '60세 이상'에서 도·소매업 신규 창업은 증가했으나, '30~50대'에서 줄어들며 감소 전환
 - * '23년 연령별 도·소매업 창업 증가율(% , 전년동기 대비) :
(30세 미만) 1.2 (30대) △1.5 (40대) △4.3 (50대) △2.7 (60세 이상) 3.2
- (조직형태별) 개인 및 법인 창업 모두 감소 기록
 - * '23년 도·소매업 창업기업 증가율(% , 전년대비) : (법인) △5.3 (개인) △1.1

□ (건설업) 부동산 PF 시장 위축, 건설 신규 수주 감소 지속,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건설업 창업 감소

○ '23년 건설수주액(경상) 및 건축 허가, 착공이 감소하는 등 건설경기 위축

* 건설수주액(경상) 증감률(% , 전년대비) : ('21) 9.2 → ('22) 10.1 → ('23) △19.1 (통계청)

< 전국 건축 허가/착공 현황 >

(단위: 동, 천m² / 증감률(%))

구분	'21년				'22년				'23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허가	동수	51,633 (1.1)	67,261 (15.4)	55,212 (△4.1)	58,325 (3.3)	46,550 (△9.8)	59,076 (△12.2)	48,881 (△11.5)	46,808 (△19.7)	36,447 (△21.7)	41,054 (△30.5)	37,242 (△23.8)	35,726 (△23.7)
	면적	35,622 (7.2)	46,050 (29.3)	43,190 (12.7)	48,342 (20.4)	40,656 (14.1)	52,381 (13.7)	45,533 (5.4)	42,901 (△11.3)	37,181 (△8.5)	34,848 (△33.5)	30,589 (△32.8)	32,461 (△24.3)
착공	동수	40,556 (△0.4)	53,851 (5.8)	44,404 (△4.3)	47,030 (△1.2)	34,715 (△14.4)	47,321 (△12.1)	36,241 (△18.4)	34,928 (△25.7)	26,248 (△24.4)	32,227 (△31.9)	27,825 (△23.2)	29,483 (△15.6)
	면적	31,077 (17.8)	35,547 (10.4)	31,184 (2.9)	37,489 (7.7)	26,240 (△15.6)	32,213 (△9.4)	29,176 (△6.4)	23,209 (△38.1)	18,700 (△28.7)	17,219 (△46.5)	16,279 (△44.2)	23,478 (1.2)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통계청(KOSIS)

○ 전세 사기 피해 여파 지속 및 다세대, 다가구 주택 거래가 감소하면서 소규모 주택 건설업의 신규창업이 크게 감소

(단위 : 개, %)

구분	2022년			2023년					
	3/4	4/4		1/4	2/4	3/4	4/4	12월	
건설업	16,290 (△2.8)	14,515 (△10.8)	67,271 (△5.9)	17,017 (△9.4)	15,674 (△11.3)	14,783 (△9.3)	14,040 (△3.3)	4,306 (△2.6)	61,514 (△8.6)

* () :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 (세부업종별) 종합건설업(건물 건설업), 전문직별 공사업(실내 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사업, 건설장비 운영업) 등을 중심으로 감소

○ (연령별) 전 연령대에서 감소했으며 특히 '40대'에서 크게 감소

* '23년 연령별 건설업 창업 증가율(% , 전년대비) :

(30세 미만) △6.3 (30대) △3.0 (40대) △13.1 (50대) △9.1 (60세 이상) △5.5

○ (조직형태별) 개인 및 법인 창업 모두 감소 기록

* '23년 건설업 창업기업 증가율(% , 전년대비) : (법인) △15.0 (개인) △7.6

□ **(전문·과학·기술)** 글로벌 경기 부진 지속, 금리 인상 등에 따른 투자 및 수요 감소 등으로 컨설팅, 디자인 업종 중심으로 창업 감소

* 연도별 경영컨설팅 창업기업 수(개) : ('21) 23,375 → ('22) 18,881 → ('23) 14,629
(단위 : 개, %)

구분	2022년			2023년					
	3/4	4/4		1/4	2/4	3/4	4/4	12월	
전문·과학·기술	13,875	12,412	58,035	14,350	13,152	12,794	12,509	3,981	52,805
	(△15.4)	(△23.7)	(△10.9)	(△10.7)	(△16.1)	(△7.8)	(0.8)	(△5.5)	(△9.0)

* () :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 **(세부업종별)** 전문서비스업(회사본부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등),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전문 디자인업 등) 등에서 창업 감소

○ **(연령별)** '30세 미만'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창업 감소

* '23년 연령별 전문·과학·기술 창업 증가율(% , 전년대비) :
(30세 미만) 3.9 (30대) △5.6 (40대) △16.2 (50대) △11.6 (60세 이상) △5.0

○ **(조직형태별)** 법인 및 개인 모두 감소 기록

* '23년 전문·과학·기술 창업기업 증가율(% , 전년대비) : (법인) △12.1 (개인) △7.8

□ **(운수·창고업)** 중국, 유럽 등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지정학적 분쟁 지속, 수출입 부진 등의 영향으로 도로화물운송업을 중심으로 감소

○ 글로벌 경제 성장률의 증가 폭 축소, 국내 생산·수출입 부진 등 산업 활력 둔화 영향으로 도로화물운송업(△6.6%)과 창고업(△11.2%) 등의 신규창업 감소

* 수출 증감률(전년대비, %) : ('21) 25.7 → ('22) 6.1 → ('23) △7.5 (관세청)

* 수입 증감률(전년대비, %) : ('21) 31.5 → ('22) 18.9 → ('23) △12.1 (관세청)

○ 반면, 온라인 소비문화의 확산 등으로 소화물 전문운송업(7.7%)의 신규창업은 '늘찬배달업' 등 증가세 지속

* 늘찬배달업 창업증감률(전년대비, %) : ('21) 18.6 → ('22) 54.4 → ('23) 14.4

(단위 : 개, %)

구분	2022년			2023년					
	3/4	4/4		1/4	2/4	3/4	4/4	12월	
운수·창고업	15,850	15,127	65,798	15,474	15,754	15,120	14,893	4,427	61,241
	(0.1)	(△10.7)	(△1.4)	(△13.5)	(△7.0)	(△4.6)	(△1.5)	(△7.5)	(△6.9)

* () :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 (세부업종별) 육상운송·파이프라인운송업이 가장 크게 감소했으며, 그 중 도로화물운송업(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용달화물자동차운송업, 개별 화물 자동차운송업)을 중심으로 감소

○ (연령별) 전 연령대에서 신규창업 감소

* '23년 연령별 운수·창고업 증가율(% , 전년대비) :
(30세 미만) △9.4 (30대) △3.5 (40대) △6.3 (50대) △8.6 (60세 이상) △7.7

○ (조직형태별) 법인과 개인 창업 모두 감소

* '23년 운수·창고업 증가율(% , 전년대비) : (법인) △4.3 (개인) △7.0

□ (제조업) 원자재 가격·환율·금리 상승, 무역적자 지속 등 국내·외적인 경영환경 불안 요인 증가, 디지털산업의 성장 등으로 제조업 신규창업 감소

○ 제조업 생산 및 무역수지 악화 등으로 창업 감소

* 제조업 생산지수 증감률(% , 전년대비) : ('21) 8.4 → ('22) 1.4 → ('23^P) △3.9(통계청)

* 제조업 국내 공급 증감률(전년동기비, %) : ('21) 6.1 → ('22) 1.4 → ('23^P) △2.4(통계청)

* 수출/수입 증감률(전년대비, %) : ('21) 25.7/31.5 → ('22) 6.1/18.9 → ('23) △7.5/△12.1(관세청)

(단위 : 개, %)

구분	2022년			2023년					
	3/4	4/4		1/4	2/4	3/4	4/4	12월	
제조업	10,153	9,387	41,595	10,144	9,345	9,348	8,443	2,786	37,280
	(△13.1)	(△17.1)	(△13.3)	(△14.0)	(△8.9)	(△7.9)	(△10.1)	(△15.2)	(△10.4)

* () :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 (세부업종별) 식료품, 섬유제품, 기계·장비, 금속가공 제품, 전자·컴퓨터, 기계·장비 등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제조 업종에서 창업 감소

○ (연령별) 전 연령대에서 감소

* '23년 연령별 제조업 창업 증가율(% , 전년대비) :
(30세 미만) △10.6 (30대) △9.4 (40대) △13.2 (50대) △11.5 (60세 이상) △3.6

○ (조직형태별) 법인 및 개인 창업 모두 감소

* '23년 제조업 창업기업 증가율(% , 전년대비) : (법인) △6.7 (개인) △11.9

□ **(금융·보험업)** 고금리,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수익성과 성장성이 정체되면서 금융업 신규 창업 감소세 지속

○ 은행업은 '22년 이후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이자수익 자산 증가 등 양호한 수익성을 기록했으나 중소기업 및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증가세 둔화 및 감소로 자산 증가세는 크게 둔화

○ 또한, 고금리 장기화와 대내외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확대되는 모습

* 국내은행 개인사업자 연체율(원화 대출, %) :

(21.11말) 0.20 → (22.11말) 0.26 → (23.10말) 0.51 → (23.11말) 0.56 (금감원)

※ '23년 12월 말 기준 8개 카드전업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BC카드)의 카드론 누적 잔액은 35조 8,381억원으로 1년 전(33조 6,403억원)과 비교해 약 2조 2,000억원 증가 (여신금융협회)

※ '23년 3분기 말 기준 8개 카드사의 연체액은 2조 516억원으로 전년동기(1조 3,398억원) 대비 53% 증가했으며, '14년 이후 최대 규모

○ 증권업, 여전업 등 비은행 부문은 금리 인상(안전자산으로 자금 이동)과 부동산 PF 부실 우려 등으로 성장성과 수익성 둔화 지속

○ '23년 국내 경기 둔화, 美 통화 긴축 지속 등의 영향으로 금융투자 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벤처캐피탈 시장을 포함한 위험자산 시장 투자 위축이 이어지면서 금융업 창업에 부정적으로 작용

(단위 : 개, %)

구분	2022년			2023년					
	3/4	4/4		1/4	2/4	3/4	4/4	12월	
금융·보험업	2,003	1,595	8,541	1,572	1,720	1,704	1,561	430	6,557
	(△22.9)	(△37.4)	(△21.2)	(△36.5)	(△30.3)	(△14.9)	(△2.1)	(△10.2)	(△23.2)

* () :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 **(세부업종별)** 금융업,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이 감소

- 금융업 중 그외 기타 분류 안 된 금융업을 중심으로 감소

-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을 중심으로 감소

○ (연령별)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

* '23년 연령별 금융·보험업 창업 증가율(% , 전년대비) :
 (30세 미만) △33.3 (30대) △29.0 (40대) △28.9 (50대) 3.3 (60세 이상) △7.3

○ (조직형태별) 법인 창업은 크게 감소

* '23년 금융·보험업 창업기업 증가율(% , 전년대비) : (법인) △38.8 (개인) 0.5

□ (정보통신업) K-콘텐츠 글로벌 확산 등으로 영상 및 방송 관련 창업은 확대되었으나 소프트웨어 산업 창업은 감소

○ 소프트웨어산업은 엔젤·벤처 등의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산업으로서 글로벌 경기둔화, 고금리 등이 소프트웨어산업 투자에 부정적으로 작용 (소프트웨어정책연구원)

※ 글로벌 경기 둔화, 고금리에 따른 투자 감소로 신규 및 영세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쟁력 부재, 신기술(AI, 클라우드, 메타버스 등) 개발의 어려움 등으로 신규진입 기업이 크게 감소

* 한국 기준금리 추이(%) : ('22.5) 1.70 → ('22.10) 3.00 → ('23.1) 3.50 → ('24.1) 3.50(한국은행)
 * 국내총생산(실질, 전년대비, %) : ('20) △0.9 → ('21) 4.1 → ('22⁹) 2.6 → ('23⁹) 1.4(한국은행)
 * 벤처 신규 투자액(억원) : ('22) 67,640 → ('23) 53,977(전년대비 △20.2%)(한국벤처협회)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창업 증감률(% 전년대비) : ('21년) 31.6 → ('22년) △8.6 → ('23년) △34.7

○ 다만, K-콘텐츠(드라마, 영화 등)의 성공, OTT 플랫폼(유튜브, 숏폼콘텐츠) 활성화와 함께 OTT 광고시장의 성장으로 영화·비디오물·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창업에 긍정적으로 작용

* OTT 플랫폼 이용률(%) : ('21) 69.5 → ('22) 72.0 → ('23) 77.0 ('23년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 숏폼콘텐츠는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 등을 정산하기로 정책('23.2.1.)이 변경되면서 수익 창출을 위해 1인 사업자/소규모 기업으로 신규사업자 증가 (한국콘텐츠진흥원)

(단위 : 개, %)

구분	2022년			2023년					
	3/4	4/4		1/4	2/4	3/4	4/4	12월	
정보통신업	10,731	10,815	46,041	13,375	10,276	9,376	11,843	2,366	44,870
	(△9.0%)	(△4.6)	(1.0)	(13.4)	(△19.1)	(△12.6%)	(9.5)	(△47.7)	(△2.5)

* () :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 (세부업종별)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비디오·방송프로그램)은 증가(71.3% ↑)한 반면, 출판업(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은 감소(29.6% ↓)
 -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창업기업 증감률(% , 전년대비) :
(‘21년) 31.8 → (‘22년) 36.9 → (‘23년) 71.3
 - * 출판업 창업기업 증감률(% , 전년대비) :
(‘21년) 28.2 → (‘22년) △8.9 → (‘23년) △29.6
- (연령별) ‘30대 이하’에서는 증가했으나 ‘40대 이상’은 크게 감소
 - * ‘23년 연령별 정보통신업 창업 증가율(% , 전년대비) :
(30세 미만) 22.2 (30대) 12.6 (40대) △13.2 (50대) △20.8 (60세 이상) △20.1
- (조직형태별) 법인 중심으로 감소
 - * ‘23년 정보통신업 창업기업 증가율(% , 전년대비) : (법인) △14.0 (개인) 0.5

참고2

'20~'23년 주요 업종별 창업 동향

(단위 : 개, %)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전 체	1,484,667 (15.5)	1,417,973 (△4.5)	1,317,479 (△7.1)	1,238,617 (△6.0)
부동산업 제외	1,046,814 (4.1)	1,100,589 (5.1)	1,111,718 (0.1)	1,111,932 (0.02)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13,094 (9.2)	13,958 (6.6)	15,752 (12.9)	14,250 (△9.5)
제조업	49,928 (△4.6)	47,989 (△3.9)	41,595 (△13.3)	37,280 (△10.4)
전기, 가스, 공기조절공급업	26,131 (△5.8)	24,146 (△7.6)	23,773 (△1.5)	31,546 (32.7)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882 (△5.7)	752 (△14.7)	704 (△6.4)	690 (△2.0)
건설업	66,366 (0.1)	71,489 (7.7)	67,271 (△5.9)	61,514 (△8.6)
도매 및 소매업	390,055 (17.0)	425,446 (9.1)	456,426 (7.3)	450,194 (△1.4)
운수 및 창고업	61,463 (△2.2)	66,723 (8.6)	65,798 (△1.4)	61,241 (△6.9)
숙박 및 음식점업	166,548 (△10.0)	161,283 (△3.2)	156,489 (△3.0)	169,188 (8.1)
정보통신업	36,760 (21.2)	45,578 (24.0)	46,041 (1.0)	44,870 (△2.5)
금융 및 보험업	8,245 (6.5)	10,833 (31.4)	8,541 (△21.2)	6,557 (△23.2)
부동산업	437,853 (56.5)	317,384 (△27.5)	205,761 (△35.2)	126,685 (△38.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4,411 (17.2)	65,134 (19.7)	58,035 (△10.9)	52,805 (△9.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47,070 (6.2)	38,675 (△17.8)	39,291 (1.6)	43,023 (9.5)
교육서비스업	39,056 (△8.9)	40,793 (4.4)	42,536 (4.3)	44,622 (4.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4,939 (△10.6)	5,094 (3.1)	4,815 (△5.5)	4,540 (△5.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7,904 (△10.4)	26,576 (△4.8)	28,318 (6.6)	27,661 (△2.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3,962 (△4.7)	56,120 (4.0)	56,333 (0.4)	61,951 (10.0)

* () :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참고3

월별 창업기업동향 통계 개요

- (작성목적) 전체 기업의 창업 동향을 적시에 파악하여 중소기업 현장경기를 진단하고, 창업 지원시책에 활용할 수 있는 통계생산
- (작성근거) 『창업기업 동향(구, 신설법인 동향)』 통계작성 변경승인 (통계청 통계조정과-254, '19.1.21.)에 의한 가공통계
- (법적근거) 통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 (작성내용) 월별 전체 기업의 업종·연령·조직형태·성·지역별 창업 동향
 - 업종 분류 :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 국세청 사업자등록자료 업종코드 기반, 통계청 조사자료 및 연계표 등 활용하여 보완
 - 연령 분류 : 30세 미만,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만나이 기준)
 - 조직형태별 분류 : 개인, 법인
 - 성별 분류 : 여성, 남성
 - 지역 분류 : 전국 17개 시·도
- (작성단위) 영리기업
 - 개인사업자 및 영리법인의 본점(사업자등록번호 중간 2자리로 구분)
 - 제외사업자 : **80**(법인 아닌 단체), **82**(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83**(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84**(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85**(영리법인의 지점), **89**(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 비시장 활동을 하는 비영리 기업(단체) 등은 제외
 - 제외대상 산업분류 : **O**(국방, 사회보장), **T**(자가소비), **U**(국제기관)
 - 제외대상 법인유형 : 사단·재단법인, 학교법인, 농·축·수산·산림 협동조합 등
- (작성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작성방법) 전국 사업자등록 DB(통계청, 행정자료)를 업종·연령·조직형태·성·지역별로 분류하여 집계

□ (이용 시 유의사항)

- 국세청 사업자등록자료를 기준으로 창업기업을 집계하여, 법령(중소기업창업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이 일부 포함
 - * 개인회사의 법인전환, 기존 회사의 합병·분할, 폐업 후 동일업종 재개 등
- 기존에 작성하던 신설법인동향(법인등기자료)과 활용하는 행정자료(사업자 DB)가 변경되어 법인 총계·업종구분 상 차이가 발생하여 비교 시 유의

구분	차이 사유
총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등기 시점과 사업자등록 시점이 상이 (법인등기 상당기간 후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법인동향은 법인등기 시 신청인이 기재한 목적 기준, 창업기업 동향은 사업자등록증의 주업종을 기준으로 업종 분류

□ (용어설명)

- 기업: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 단위로 하나 또는 2개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되면서 동일자금에 의하여 소유되고 통제되는 제도적 단위 또는 법적 경영단위(회사법인, 회사이외법인, 비법인단체, 개인기업의 형태로 구분)
- 창업기업: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자 등록일자가 해당 월에 속하는 영리기업(개인, 법인기업 포함)
 - * 개인회사의 법인전환, 기존 회사의 합병·분할, 폐업 후 동일업종 재개 등 포함
- 기술기반창업: 기술기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창업
 - * 기술기반업종(OECD, EU 기준) : 제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N75), 교육 서비스, 보건·사회복지, 예술·스포츠·여가(R90))

□ (2023년 창업기업동향 공표 계획)

통계명	공표일자	비고
2023년 연간 및 12월 창업기업 동향	2024. 2. 29.(목)	보도자료 발표

* 상기 공표 계획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통계수치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mss.go.kr)와 국가통계포털(kosis.kr)에 공개